사라진 아시아… "갈 길이 멀다"

U-20 월드컵 이란 · 베트남 조별리그 탈락
대한민국 · 일본, 토너먼트 첫 관문서 주저앉아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아시아팀들이 사라졌다. 토너먼트 첫 판이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시아팀은 총 5개국이다.

예선 성격을 지닌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상위 4개팀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트남과 개최국 한국이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연령대 월드컵은 성인 대회와는 달리 이변이 많다.

성인 선수들에 비해 선수들의 실력차가 작은데다 유럽과 남미 강팀들이 최정예를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축구 약소국들의 선전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잠비아가 독일을 꺾고 8강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아시아팀들은 이번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란과 베트남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한국, 일본은 토너먼트 첫 관문에서 주저앉았다. 최후의 보루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31일 우루과이에 덜미를 잡혔다.

개최국인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인 2승1패를 기록했다.

2차전에서는 남미 최강팀이자 대회 최다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2-1로 격파했다.

하지만 정작 토너먼트 첫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는 1-3으로 완패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신태용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눈에 띄게 뒤졌다.

안방의 이점을 살려 최소 8강, 나아가 그 이상을 겨냥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형원한 라이벌인 일본도 베네수엘라에 0-1로 져 이른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 무대를 누빌 수 있는 연령대다. 자국에서 열릴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관심은 무척 뜨거웠다.

언론들은 앞다퉈 선수들의 기사를 게재했다.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뒤에는 "갈 길이 멀다"는 냉철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U-20 월드컵 토너먼트 첫 판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2011년 콜롬비아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권 진입을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과의 격차는 상당한 느낌이다.

/김민근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6강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며 탈락한 대한민국 백승호가 눈물을 보이자 골키퍼 송범근이 위로 하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6' 오는 30일 첫 방송

케이블 채널 엠넷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연출 이지혜)가 오는 30일 첫 방송된다.

엠넷은 1일 이번 시즌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은 '쇼미더머니'에는 타이거JK · 비지 · 다이나믹듀오 · 박재범 · 도끼 · 지코 · 딘이 심사위원 겸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제작진은 지난 4월부터 한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 뉴욕에서 1차 예선을 진행했고, 지난주까지 2, 3차 예선을 모두 마친 상태다.

2012년 시작한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는 로꼬 · 비비 · 베이식 · 비아이 등 스타 래퍼를 배출했다.

/뉴시스

씨스타 마지막 싱글 '론리' 음원차트 싹쓸이

데뷔 7년 만에 해체를 결정한 그룹 '씨스타'의 마지막 싱글 '론리'가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씨스타가 지난달 31일 오후 공개한 '론리'는 1일 오후 현재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비롯해 7대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론리'는 씨스타와 '터치 마이 바디' '아이 라이크 댓'으로 호흡을 맞춘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이 작업한 어쿠스틱 R&B다. 2010년 싱글 '푸시 푸시'로 데뷔한 씨스타는 섹시함과 건강미로 인기를 누려왔다.

가창력을 갖춘 효린과 소유는 솔로 가수로 전향할 가능성이 크다.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로 주목 받은 다솜,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보라는 연기자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씨스타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2일 KBS 2TV '뮤직뱅크' 3일 MBC TV '쇼! 음악중심', 4일 SBS TV '인기가요'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7' 14일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7'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여수, 군산, 무주, 영주, 충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트루 드 코리아는 트루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사이클 대회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200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0년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투르 드 코리아 조직위, 대한자전거연맹 등이 주관한다. 이 대회는 엘리트 대회와 스페셜 대회로 나눠 열린다.

엘리트 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 등록 선수로 구성된 국내외 초청 20개 팀 200명이 5일 간 778.9km의 도로 위를 달린다.

선수들은 14일 전남 여수를 출발해 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에 도착한다.

짧게는 66.2km(서울)에서 길게는 224.7km(여수→군산)까지 총 778.9km를 매일 경주하며 도전과 감동의 레이스를 벌인다.

오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열리는 스페셜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KCF), 마스터즈사이클투어(MCT) 등록 동호인 선수 중 프리테스트를 통과한 25개팀 250명이 약 300km를 질주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UCI 프로콘티넨탈 5개팀(전년 4개 팀)이 참가하면서 선수 기량 및 대회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 개최로 경제 파급효과 300억원과 미디어, 인터넷 노출 홍보효과 250억원 등 총 550억원의 개최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르 드 코리아 2017은 유투브를 통해 전 경기가 LTE로 생중계된다. 대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tourd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7'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여수, 군산, 무주, 영주, 충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조남주 작가 '82년생 김지영' 영화화… 내년 개봉

조남주(39)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민음사 · 2016)이 영화로 재탄생한다.

1일 봄바람영화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내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한다. 봄바람영화사는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많은 여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밝혔다.

'82년생 김지영'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남편의 첫사랑으로 빙의되는 증상을 보이는 평범한 30대 여성 김지영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한편 소설은 지난해 온 · 오프라인 서점 소설 부문 판매량 1위에 올랐고, 15주 연속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머물렀다. 또 발표 7개월만에 10만부 이상 판매되기도 했다.

/뉴시스